

부산시 1000인으로 아바육아 확대한다

부산 1000인의 아바단 출범! 시와 16개 구·군이 함께 본격 사업 추진



부산시는 아빠의 육아 참여를 넓히고 가족이 함께 성장하는 육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부산 1000인의 아바단'을 올해부터 '부산 1000인의 아바단' 운영으로 행복육아 문화를 확산했다. 시는 21일 시와 16개 구·군 아바단이 함께하는 합동 발대식을 열고 아바단 활동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이번 발대식에 참여하는 1,000인의 아바단 가운데 200명은 현장에서, 800명은 줌(Zoom)을 통해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부산 1000인의 아바단' 소개 영상 상영 ▲시, 구군 대표 아바단 선언문 낭

독 ▲아바단 릴레이 깃발 퍼포먼스 및 세레모니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2부 행사에서는 시와 구·군 아바단 네트워킹 및 오리엔테이션이 마련돼 참여 아바들의 소속감과 실천 의지를 높였다.

'부산 1000인의 아바단'은 시 아바단 100명과 16개 구·군 아바단 900명으로 운영되며, 3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12월까지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이어간다.

온라인에서는 놀이·교육·건강·일상·관계 등 분야별 주간 미션을 수행하고, 오프라인에서는 아바와 아이가 함께 부산의

명소와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9월에는 시와 구·군 아바단이 함께하는 '함께육아 데이(day)' 합동 행사를 추진하고, 12월에는 한 해 동안 아바단 활동을 마무리하며 성과를 공유하는 해 단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는 16개 구·군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체험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며 부산 전역으로 함께 육아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영도구 어묵만들기 체험, 수영구 요트 체험 등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한다.

이용우 기자

경남 지능정보화 244개 사업에 3,326억 투입

경상남도 지능정보화위원회 열고 '지능정보화 시행계획' 심의·확정



경상남도가 올해 지능정보화 244개 사업에 3,326억 원을 투입하며 '디지털혁신수도 경남' 구현에 속도를 낸다.

경남도는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지능정보화위원회를 열고, '2026년 경상남도 지능정보화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올해 시행계획은 '도민과 함께 뛰는 디지털혁신수도, 경남'을 목표로 산업경제, 도민안전, 문화복지, 스마트행정 등 4개 분야 244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총 사업비는 3,326억 원으로, 지난해(3,167억 원)보다 4.8% 증가했다. 도는 디지털 기술을 도정 전반에 적용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분야별로 보면 '산업경제' 분야에 가장 많은 2,466억 원이 투입된다. 기계·방산·조선 등 주력 산업의 디지털 제조혁신을 비롯해 첨단 로봇 기반 구축, 우주항공 인공지능(AI) 국산화 기술 개발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초거대 제조 인공 지능(AI) 서비스 개발·실증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농·축산·원예 분야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지원, 기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 등 총 78개 사업을 통해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한다.

'도민안전' 분야에는 182억 원

을 투입해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주요 사업은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영상관계 시스템 구축, 지능형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확대 설치, 재난현장 영상 통합플랫폼 구축,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적용한 안심골목길 조성 등 50개다.

'문화복지' 분야에는 529억 원

을 배정했다. 스마트경로당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마트빌리지 확산,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확대, 글로벌 융복합 콘텐츠산업타운 조성, 글로벌게임센터 운영, 인공지능(AI) 기반 통합복지 플랫폼 구축 등이 포함된다. 또한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벽오지 대상 수요응답형 버스 확산 등 44개 사업을 통해 디지털 접근성과 복지서비스를 높일 방침이다. '스마트행정' 분야에는 147억 원을 투입한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행정·홍보 강화, 인공지능(AI) 활용 교육 및 서비스 지원 확대, 인공지능(AI) 경진대회 개최, 지능형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구축, 행정·정보보호 시스템 유지관리 등 72개 과제를 추진해 행정 효율성과 도민 중심 서비스를 높일 계획이다.

최성룡 기자

울산 프로야구는 집요한 승부사 오르카

공공디자인 공모전 대상, 전국 최초 시민 프로야구단 홍보 기반 마련



울산 시민 프로야구단을 상징할 대표 마스코트로 범고래를 형상화한 '집요한 승부사 오르카'가 선정됐다. 울산시는 '제16회 울산광역시 공공디자인 공모전'에서 대상 '집요한 승부사 오르카'를 비롯해 총 10점의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전국 최초 시민 프로야구단인 울산웨일즈 창단을 계기로 울산의 도시 상징성과 구단 이미지를 결합한 대표 마스코트를 개발하고, 구단 홍보와 도시 상표(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난 1월 26일부터 3월 4일까지 진행됐다.

전국에서 총 185점의 작품이 출품된 가운데 지난 3월 6일 공공디자인 및 관련 분야 전문가 심사를 거쳐 작품성, 독창성, 활용성, 대중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작을 선정했다.

심사 결과 ▲대상 1점 ▲최우수상 1점 ▲우수상 1점 ▲장려상 1점 ▲특선 3점 ▲입선 3점 등 총 10점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대상작으로는 '집요한 승부사 오르카'가 선정됐다.

이 작품은 울산웨일즈 구단 상징인 범고래 이미지와 야구의 역동적인 이미지를 결합해 스포츠 마스코트로서의 상징성과 활용성을 조화롭게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공격과 수비 동작, 응원 표현 등 응용 동작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디자인돼 향후 구단 마스코트로서 활용도가 높다는 점이 돋보였다.

심사위원들은 "출품작 전반이 울산 시민야구단의 상징인 범고래 이미지를 창의적으로 표현했다. 대상작은 울산웨일즈 프로야구단 공식 마스코트로 지정될 예정이다. 특히, '범고래와 야구의 역동적인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결합해 작품성, 독창성, 활용성 측면에서 우수하다'라고 밝혔다. 대상작은 구단 홍보물과 기념품, 공공시설 안내판, 조형물, 영상 콘텐츠 등 매체에 적용돼 울산을 대표하는 도시 스포츠 상징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시상은 울산시장상과 함께 대상 1,000만 원 등 총 1,5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이호근 기자

김천김밥축제, 롯데백화점과 손잡고 전국 불업 시동

김천시-롯데백화점, 김천김밥축제 브랜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김천시는 김천시청에서 롯데백화점과 김천김밥축제의 성공적인 개최 및 브랜드 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배나호 김천시장과 임형빈 롯데백화점 F&B 부문장 등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서 양측 대표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서명 및 교환,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김천김밥축제의 전국적인 인지도 확산에 따른 관광객 유입을 확대하고, 김천시의

축제 콘텐츠와 롯데백화점의 유통·마케팅 인프라를 결합한 마케팅 협력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백화점 내 사전 팝업스토어를 운영하고,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을 활용한 공동 마케팅을 추진하는 등 김천김밥축제 홍보와 관광객 유치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김천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축제 개최 전, 수도권에서 이벤트를 진행해 김천의 매력을 알리고,

축제 분위기를 불업시키며 관광객의 발길이 자연스럽게 김천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배나호 김천시장은 "로컬브랜드의 자부심 김천김밥축제가 이번 롯데백화점과의 협력을 통해 축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나아가 김천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협력을 통해 김천김밥축제를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성장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 지정 문화관광예비축제에 선정되며 문화콘텐츠로서 그 가

치를 인정받고 있는 김천김밥축제는 오는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김천 직지문화공원 및 사명대사공원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김천시는 실과소, 읍면동 회계관계 공무원 및 8·9급 직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회계실무 및 감사사례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예산·회계 실무 교육에서부터 회계 업무를 처음 접하는 신규 직원을 위한 기초 교육에 이르기까지 실무자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한윤석 기자

금성대군 뉘 깃든 은행나무, 국가산림문화자산 추진

영주 내죽리·경주 운곡서원 은행나무...역사·스토리 산림자산



경상북도는 최근 1,3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흥행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 '왕과 사신'의 주인공인 왕 단종과 그를 지키

려 했던 금성대군의 서사가 깃든 영주 내죽리 은행나무와 경주 왕신리 운곡서원 은행나무를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이번 지정 신청의 핵심인 영주 내죽리 은행나무(영주시 순흥면 내죽리 98)는 단종의 복위를 꾀하다 순절한 금성대군의 뉘 깃든 나무로 알려져 있다. 특히 조선 후기의 대표 실학자인 성호 이익의 문집인 '성호사설'에 따르면, 단종 폐위 이후 200년간 고사(枯死)했던 나무가 단종이 복위되고 금성대군을 비롯하여 희생된 마을 사람들의 뉘를 기리는 제단을 쌓아 신비롭게도 은행나무가 새잎을 피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나무의 신비로운 소생을 부활한 단종의 몸으로 믿었다. '왕사'에서 묘사된 비극적인 서사가 고스란히 배어 있는 이 나무는 1982년 보호수로 지정되어 지금까지도 지역 주민들에게 수호신과 같은 존재

로 여겨지고 있다. 아울러, 같은 해 보호수로 지정된 경주 왕신리 운곡서원 은행나무(경주시 강동면 왕신리 310)는 금성대군과 함께 단종 복위를 도모하다 죽음을 맞이한 관선해의 후손인 권중량이 영주 내죽리 은행나무의 큰 가지 하나를 가지고 와 심은 것으로, 그들의 충절이 서려 있다. 가을이면 서원 전체를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장관을 연출해, 역사적 의미는 물론 독보적인 경관 가치를 자랑한다.

경상북도는 '왕사' 열풍으로 급증하는 역사 관광 수요를 통해 지역에 방문객 유입을 확대하고, 지역의 산림자원과 결합하여 실질적인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최순고 국장은 "왕과 사신"을 통해 재조명된 충신들의 기개를 현장에서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소중한 산림 자산을 보존할 것"이라며, "경상북도를 단순한 관광을 넘어 역사적 스토리텔링이 결합된 산림관광의 중심지로 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윤석 기자

대구시 봄 나들이철 식품안전 선제대응

대구광역시시는 3월 23일(월)부터 27일(금)까지 닷새간 봄철 다중이용시설 주변 음식점 135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기존 상수와 함께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원과 유원지 주변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선제적으로 확인해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김밥, 샌드위치, 햄버거 등 간편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으로, 지난해 점검을 받지 않았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를 우선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사용·보관 여부

▲표시 및 보관 기준 준수 여부 ▲무등록·무표시 제품 사용 여부 ▲식품 관계법에서 정한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대구시는 위생 점검과 함께 김밥, 샌드위치 등 간편식 조리식품 16건을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병행한다.

점검 결과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부적합 제품은 현장에서 즉시 회수해 폐기할 방침이다.

노관용 위생정책과장은 "따뜻한 봄을 맞아 나들이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민들이 자주 찾는 명소 주변 음식점의 위생 관리를 강화해 식품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윤석 기자

우주항공 국가산단 사천지구 산·학·연 집적화 추진해

사천시가 우주항공 국가산업단지 사천지구를 중심으로 산·학·연·기업이 집적된 미래형 우주항공 산업 생태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특히, 우주항공청 신청서를 핵심 거점으로 연구개발, 기업지원, 인재양성 기능이 결합된 '사천 우주항공 클러스터' 조성을 가속화하며,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우주항공청 신청서는 우주항공 국가산업단지 사천지구 A4 블록에 조성되며, 2029년 완공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신청서는 행정·임무수행 기반 시설·홍보공간·편의시설 등 핵심 기능이 집적된 복합 거점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우주항공 산업 전반의 정책 추진과 기관 협력을 뒷받침하는 중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우주항공청 신청서를 중심으로 산·학·연 집적화를 위한 기반시설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지식산업센터와 위성개발혁신센터, 첨단 우주항공 창업기업을 위한 공유공장 등이 조성될 예정으로, 기술 개발부터 창업·사업 화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산업 생태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두원중공업은 이미 공장을 가동하며 자동차 부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등 안정적인 생산·수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주)캠프와 리더인항공 역시 공장 준공을 진행하는 등 관련 기업들의 입주와 생산 기반 확충이 이

어지며 산업 집적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향후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우주항공청 신청서를 중심으로 한 산·학·연·기업 집적은 산업단지 조성을 넘어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핵심 전략"이라며, "사천을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우주항공 수도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성룡 기자